

# 제철 전어 어획량 '뚝'... 없어서 못판다

### 전남수협, 위판 가격 kg당 2만원까지 치솟아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별미로 꼽히는 전어가 '귀하신 몸'이 됐다. 고흥·완도 등 지역 어가는 금어기(5월11일~7월15일)를 끝내고 여름 햇전어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1일 강진·고흥 등 6개 지역 수협에서 출하된

전어는 9328kg으로 평균 위판가격은 kg당 99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평균 위판가격 5976원 보다 65.9% 높은 수치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는 전어 2만1002kg이 출하됐다. 전어 출하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경종 뒤편다. 수협 관계자는 매일 전어 수확량이 들쭉날쭉

속이라 물량이 많지 않은 날은 kg당 2만원까지 위판 가격이 뚝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전어 위판가격은 본격적인 출하시기였던 지난해 9월(kg당 1만1941원)과 10월(1만119원)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5일까지 이틀간 보성 울포해변에서 열린 보성전어축제에서 전어회(1kg 안팎) 한 접시는 2만원에 판매했다. 전어 축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열린 경남 사천에서는 900g 한 접시를 1만2000원에 팔아 아예 물량이 동이

나기도 했다.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에는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20회 광양전어축제'가 예정돼 있다. 수협 관계자는 "전어는 원래 가을전어로 소문나 있지만 점점 어획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최근엔 육질이 연하고 뼈가 부드러운 여름 햇전어가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본격적인 출하 기인 9월 초순에는 전어 가격이 안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세계, 농가 활성화 앞장 매달 2~3회 산지 직거래 열기로

광주신세계가 '호남 농수축산물 산지 직거래 행사'를 매달 2~3회씩 열기로 했다. 직접 발굴한 농가로부터 유통 마진 없이 매 회 500만원 안팎의 농산물을 매입할 예정이며, 홍보·판매도 신세계 측이 진행한다. 1년 예산은 1억~1억5000만원 정도다. 지역 상생 노력의 하나로 농가의 소득 보장과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 광주신세계 측 설명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3일 매장 1층 광장에서 장성 '꿈꾸는 농부' 거봉포도를 판매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 가격은 2kg 한 상자 1만 3000원으로, 기존 백화점 판매가격(2만원)보다 40% 저렴하다. 앞서 지난 2일 정읍 '경봉복숭아'와 9일 완도 '덕우도 전복'을 선보이는 등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광주신세계가 매입하는 지역 신선식품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80%에 달한다. 최택열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농산물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지만 단 1원의 이익 없이 원가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며 "'호남물산전'과 명절 '로컬기프트' 행사 등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넓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도-농협중앙회, 농업·농촌 발전 협약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왼쪽 7번째)와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왼쪽 6번째)는 지난 23일 서울 농협 중앙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전남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위·수탁운영 ▲호남권친환경농산물류센터 활성화 ▲'2019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마늘·양파 과일생산 막자" 전남농협 채소류 면적조절 추진

### 수급 불안·가격 폭락 반복에 농업인·지자체 등 면적 논의

올해 양파·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협이 해당 채소의 내년 재배면적 감축에 나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기)는 지난 20일 무안농협 회의실에서 '마늘·양파 적정면적 재배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마늘·양파 재배 농업인과 지자체·농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내년 재배면적을 논의했다. 2019년산 양파의 경우 입고량이 평년보다 19% 많아 2020년산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넓어지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측분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조생종양파 재배의향면적은 1819ha로, 적정 재배면적 1798ha보다 21ha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만생종양파 재배면적은 1811ha 부족했다. 전국적으로 2020년산 재배의향면적

을 보면 조생종은 평년보다 1%(46ha) 많은 2926ha, 중만생종은 11%(1932ha) 부족한 1만 5592ha로 전망됐다. 이 수치대로 양파가 재배된다고 가정하면 '사전 면적 조절 매뉴얼'에 따라 '안정'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면적조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협 측 설명이다. 농협은 이날 양파 재배면적을 5% 줄이면 출하 가격이 4.2% 상승, 농가 소득은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었다. 3000평(9917㎡) 규모 양파 농장을 2850평으로 줄이면 평균 단가는 kg당 470원에서 490원으로 4.2% 올라간다는 것이다. 농협은 총수입은 1% 가량 떨어지지만 경영비용이 5% 절감되면서 소득은 5%(1074만~1127만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마늘 역시 내년 재배면적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9년산 마늘 입고량은 평년보다 12% 많지만 1만5000t 추가 수매가 예정돼 있어 수확기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지역 마늘 재배의향면적 5159ha로 적정재배면적 5314ha에 비해 155ha 부족했다. 농촌경제연구원측에 따르면 2020년산 마늘 전국 재배의향면적은 평년보다 2% 감소한 2만 4950~2만5400ha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고량과 평년 소비량을 고려하면 적정 재배면적(2만3500ha) 보다는 1450~1900ha 많다. 마늘도 양파와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을 5% 줄이면 출하 가격이 4.1% 상승, 농가 소득은 4.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협은 매년 채소류의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이 반복됨에 따라 올 겨울과 내년에는 주요 채소류를 대상으로 생산단계 이전부터 재배면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귀현 전남본부 친환경육성반 차장은 "지자체, 농협 등은 적정 재배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와 예상되는 수급상황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면적조절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지소미아 종료... 불확실성 확대  
미중 무역전쟁·파월 발언 후폭풍  
코스피지수 1900선 위협 예상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 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예상 밖 지소미아 종료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난 금요일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낙폭을 줄였고 관망분위기가 짙게 형성되며 마감했다. 지소미아 종료 보다는 23일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 발언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28일 시행된다.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상황에서 규제 대상품목과 강화수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주 초반 반등세를 보였던 뉴욕증시가 금요일 급락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에 중국 국무원은 5078개 품목 750억달러(약90조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5% 이상 관세 부과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인상으로 재반격하고 중국내 미국기업에 대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또다시 무역전쟁 확대로 투자심리를 크게 압박했다. 또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제롬 파월 미연준의장은 직선형 연설에서 미국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고 연준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음달 FOMC에서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단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난 14일에 이어 9일만에 경기침체 신호로 인식되는 2년물과 10년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장중 다시 역전 현상을 보인 것도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금요일 다우존스지수는 2.37%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239.62pt(3.00%) 하락해 7751.77pt에 마감했다. 이달말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지수 8월 리밸런싱과 관련해 외국인수급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누적으로 외국인은 코스피지수 2조4667억원과 코스닥지수 5680억원을 순매도 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 2조1210억원과 코스닥지수 181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MSCI EM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자금이 반영을 상당부분 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마지막주를 시작하는 27일부터 3일간 코스피지수 1조2900억원과 코스닥지수 1164억원을 순매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주에도 외국인수급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번 주 국내증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미중 무역분쟁심화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달말 중국A주MSCI EM지수 편입 확대에 따른 수급약화와 더불어 28일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코스피지수 1900선을 위협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필자는 주 초반 상승시 험금비중을 확대해 단기 변동성에 대응할 것을 권유했었다. 아시아증시는 물론 글로벌증시에서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으로 평가되는 우리증시에서 추가하락은 매도보다는 보유가 바람직해 보이며 미중무역분쟁, 한일관계악화, MSCI EM지수 편입 등에 따른 단기 지수급락시에는 대형주와 지수레버리지ETF 매수를 통한 저점매수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